



4월2일
금요일

보 도 자 료

생명의 땅 으뜸 전남
Land of Life, Best Jeonnam

실국	식량원예과	과장	박철승	팀장	최만수	☎	286-6480
----	-------	----	-----	----	-----	---	----------

전남도, 175억 원 투자하여 농산물 수출 기반확대 ‘전방위 지원 박차’

- '23년까지 농산물전문단지 60개소 육성, 탄탄한 수출기반 구축 -

전라남도는 농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수출예비단지를 지정하는 등 농산물전문생산단지 60개소를 목표로 추진하고, 딸기 등 수출 유망 품목도 집중 육성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농산물을 수출하고는 있으나 농산물전문단지 지정규모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단지나 농업법인을 '22년까지 예비단지 20개소로 지정하는 등 40억 원을 지원하여, 지정기준에 맞는 면적확대, 유통시설 등 구축을 통해 농산물전문단지로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수출물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수출딸기 지원대책도 확대한다.

올해 23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딸기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을 '22년까지 60억 원으로 확대하고, 딸기 수출전문단지 10개소 조성을 위해 '23년까지 40억 원을 투입한다.

농산물을 수출하는 농업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그간 매년 4억 원을 지원하고 있는 전문단지 육성사업이 수출농가에 대한 별도의 우대지원이 부족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수출실적이 많은 농가가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22년도 사업시행지침, 평가계획 등도 개정할 예정이다.

박철승 식량원예과장은 “농산물 수출은 내수시장 안정화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필수과제로 농산물 전문생산단지를 거점으로 수출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며, “수출 희망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현장과 지속 소통하고, 유관기관 등과 협력하여 대책과 지원책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산물전문생산단지는 전문화, 규모화, 조직화되어 있는 생산 단지를 정부에서 전문단지로 지정해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는 제도로 전남에는 현재까지 전국 196개소의 15%인 30개소가 농산물전문생산단지로 지정되어 있다.